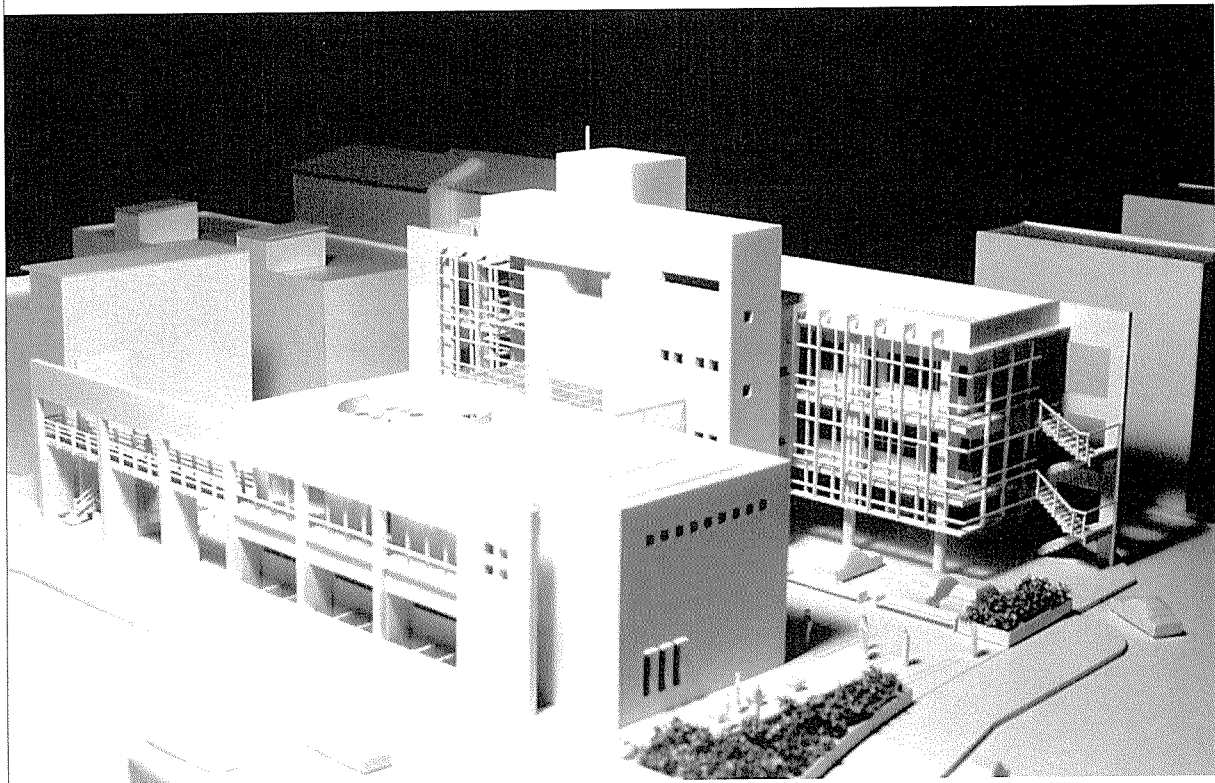


성동노인종합복지관 Sungdong Elder's Welfare Center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Sam-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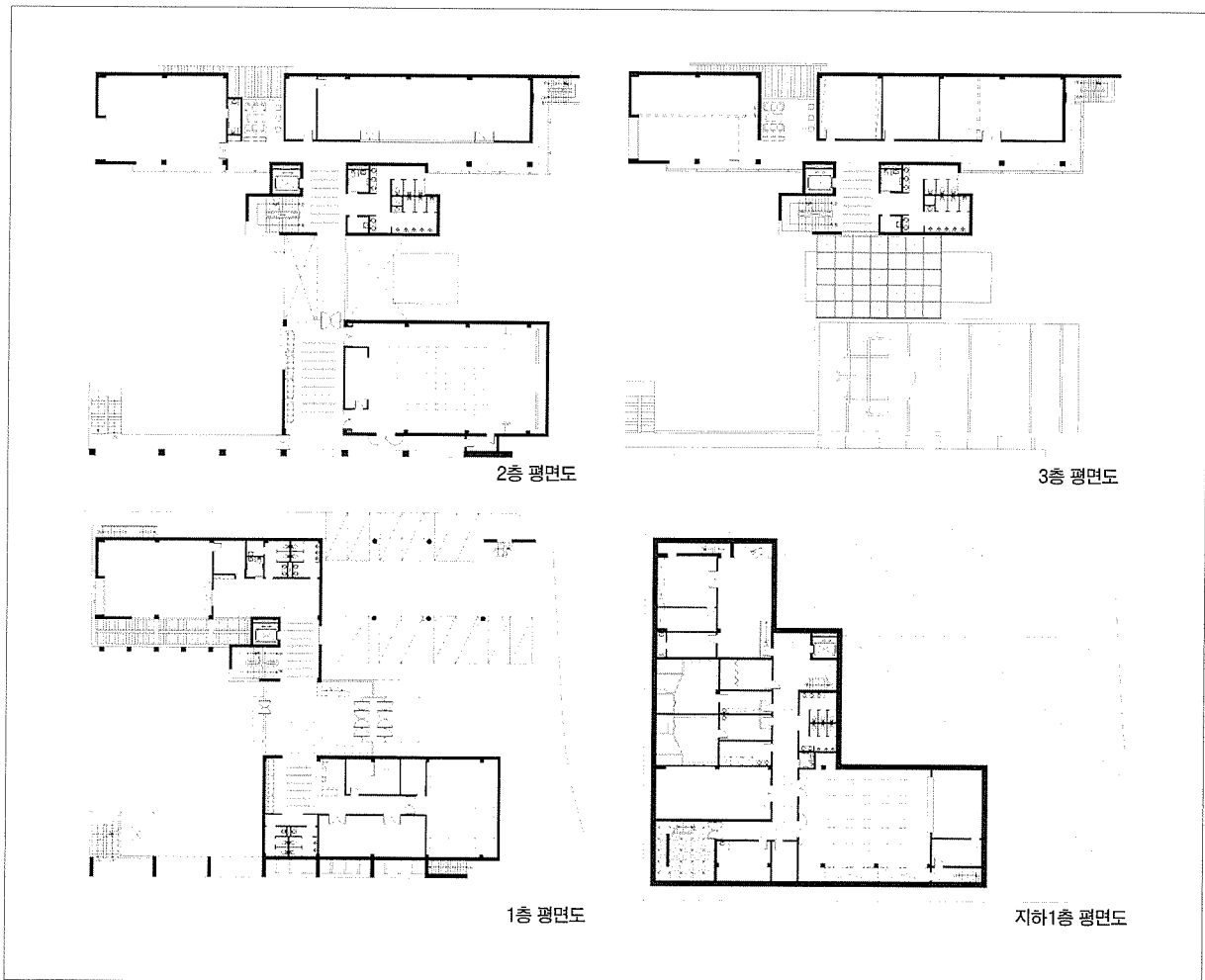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건축을 하겠다고 결심한데는 두개의 동기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먹고 살자는 기본적인 생존수단으로 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상하고 품나게 살자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건축을 보고 경험하고 감동과 감탄으로 건축가로서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는 속됨이 그것이다.

6년전 학연, 혈연, 지연하고는 무연인 서울땅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일을 해보자니 찾아갈 곳은 커녕 전화할 곳조차 없었으니 그나마 아침, 저녁 신문 광고란이나 입찰정보를 뒤져 입찰이나 현상공모에 목을 매야 했다. 실력, 재력, 로비력 모두 무력한 나로서는 그나마 재

수에 기대 살아갈 팔자였다. 복권을 사야 되든지 말든지 하지 우선 현상공모 공고마다 자격만 되면 접수를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눈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줄이 짧고 약할지... 천신만고 끝에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날아갈듯한 기쁨보다 안도의 한숨과 아릿한 불안에 휩싸인다.

98년 3월 IMF한파가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어느날 또 하나의 입찰에서 아찔한 좌절을 보고는 이제는 좌판을 접어야겠구나 라는 절망의 담배를 연신 피우고 있을 때 접수해 놓고는 잊고 있었던 - 늘상 떨어짐이 버릇되어 공모에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한 사실조차 잊어 버림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다. - 성동노인종합복지회관



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감사의 기도가 탄식처럼 흠어졌다.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심사방법과 돌발적인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 있었다.

늘 새로운 제안은 새로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나같이 무언, 무력의 촛놈에게 다행스럽고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던 심사방법인 것 같았다. 고맙게도 당시 김 호수 성동구 도시국장은 오랫동안 현상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소모적인 전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다. 찬반 양론이 있지만 심사위원 사전 공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그리고 무연고 지에서의 나에게는 다소 덜 불리한 것 같았다.

대체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랬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지명도는 낮을수도 심사능력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젊고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학자들이 심사의 주축이 되었다. 물론 관례였던 비전문 공무원은 모두 배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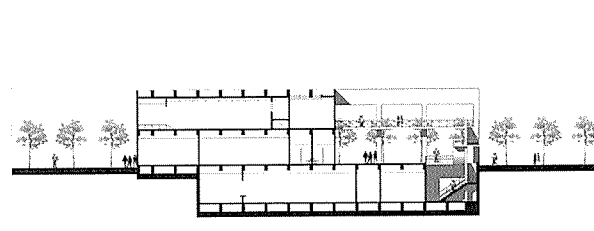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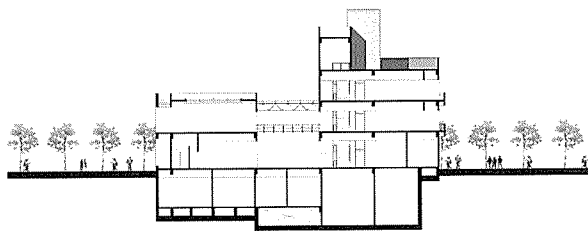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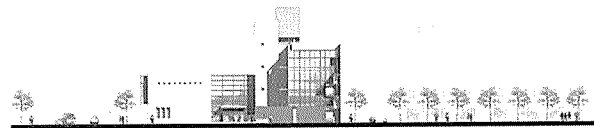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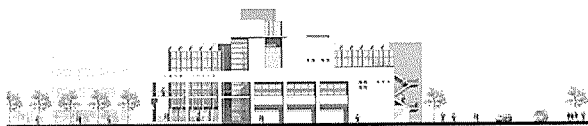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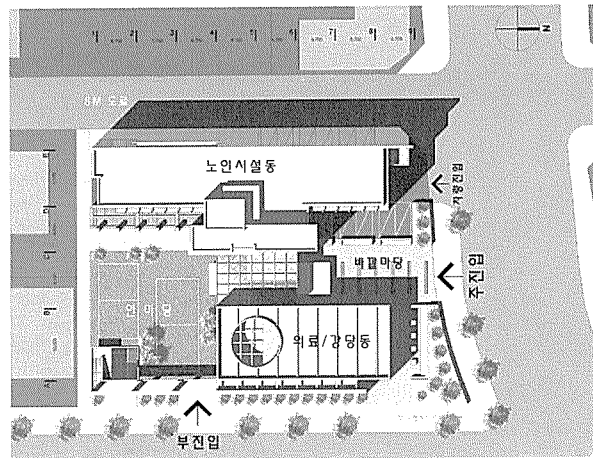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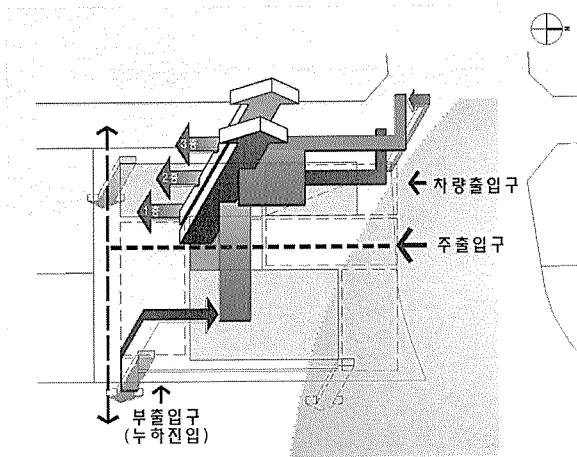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공모심사 후 심사위원 및 심사결과표 공개, 심사과정과 심사기준 공개는 심사위원의

책임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으며 의혹을 줄여 주었다.

수상작들의 공개 또한 심사자의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모제출 결과물도 경비가 많이 드는 컬러 투시도는 배제되어 사내인력으로 가능한 단색모형, 적은량의 패널, 보고서는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 적은경비와 인력으로도 가능케 도와주었다. 다소 불편함은 모형 스케일이 좀 컸다는 것 뿐이었다.

어쨌든 당선된 설계안은 여러곳을 경유하며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담당 그리고 윗사람 그리고 그 윗사람, 상급기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 원래의 모습은 다소 변질되어지고 있었다. 현상공모안이 늘 맞이하는 숙제인 공사비 문제는 결정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공사비가 과도한 설계 공모안이 채택되는 것이 문제다. 되고 보자는 식의 설계자와 뽑고 보자는 발주자의 의식이 일단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짧은 시간 심사위원의 직관에 의존된 최종선택이 빚어내는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며 불행하



계도 이 모든 책임은 건축가의 몫이 된다.

발주처에서는 공사금액과 용도만 제안하고 규모는 애초 지침에서 뺏어야 맞지않는가는 공사금액 문제로 많은 부분 설계변경이 되어야 함을 겪는 건축가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얼굴에는 미소를 그리며 속으로는 인내를 세기며 만난 술한 사람들 덕에 무사히 설계는 마쳤으나 그 다음 벽은 더욱 나를 숨막히게 한다. 건축가라고 자처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제도지만 설계자가 감리를 못한다는데는 통한을 해야했다. 실행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의계약금액 범위내에의 용역비라도 좋으니 내손으로 지어질때까지 지켜보고 모자라거나 잘못된 곳은 고쳐주고 싶었으나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간 몇몇 관공사를 공모에서 설계기회는 얻었으나 한번도 감리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한번은 용기를 내서 책임감리회사를 설립해 보기도 했지만 융통성(?) 없는 주변머리 때문에 결국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폐업했어야 하는 뼈아픈 상흔만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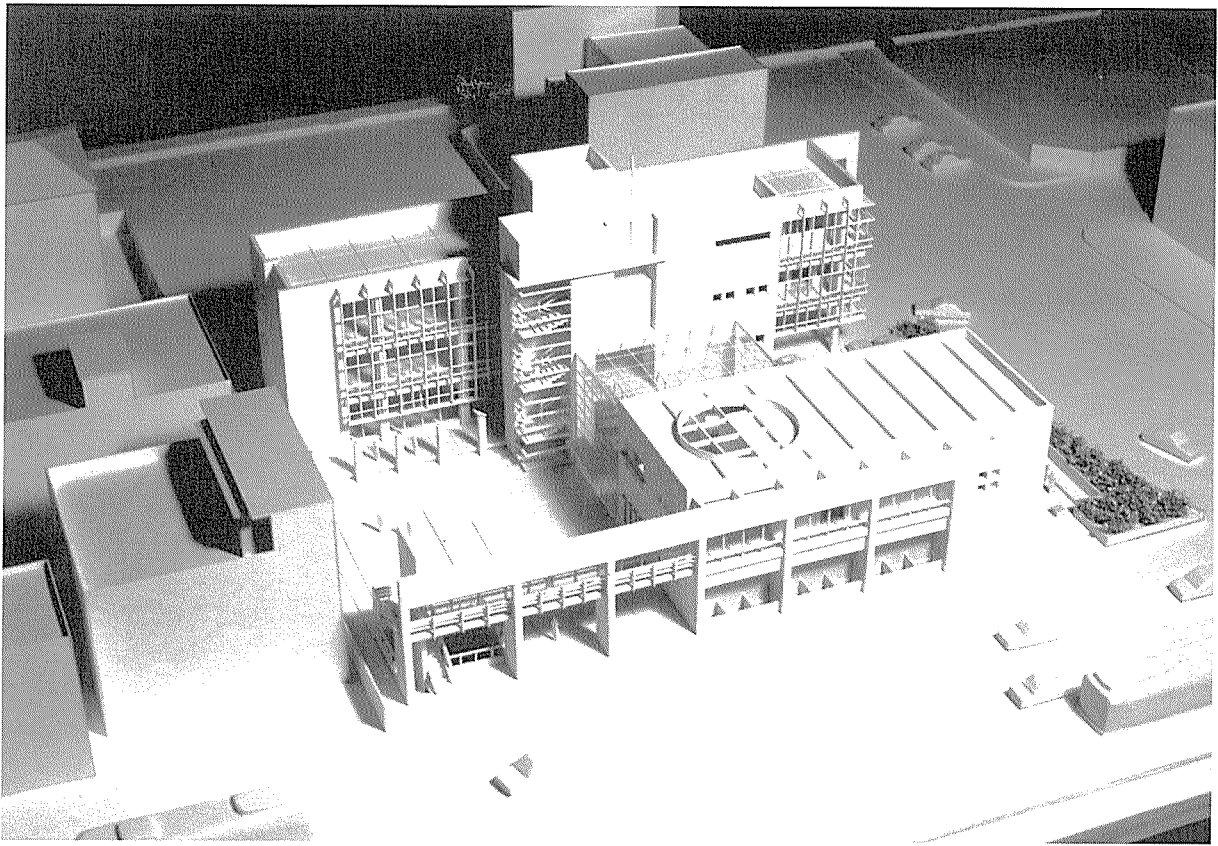
가끔은 설계만 하고 감리를 못한 관공사 공사 현장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설계와 틀린 또는 설계의도가 왜곡

된 시공장면을 보고 핏대를 올려보지만 이미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니 간섭 말라는 투다.

결국 잘못된 부분은 설계자의 설계잘못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는 이 건물이 잘지어져서 많은 노인네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발상으로 계획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지어질 회관을 사용할 노인네들의 과거 주거형태는 대개가 마당이 있고 꽃밭도 있고 별이 온 집을 감싸는 추억이 서린 집들이었으리라. 비록 대지는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를 3면으로 낀 곳이지만 크고 속도 빠른 도로와는 가능한 분리시켜주고 이들만의 영역을 보호해 주자는 생각으로 큰 도로 전면에 판벽으로 커를 하나두고 또 화단도 만들어 Buffer Zone을 만들었다.

빛이 가득한 안마당은 툃마루와 입체로 구성된 판벽 2층부의 통로가 관람석이 되기도 하여 놀이, 공연의 행사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앞마당과 안마당을 가로막는 로비는 투명한 유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마당 입구에서 로비를 관통하여 안마당으로 진행됨이 깊어있고 자연



스럽게 전개된다.

빛으로 가득한 로비를 가운데 두고 기능이 다른 두개의 동—취미교실동, 강당 및 의료시설동—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는 일상을 유도한다.

노인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빛은 그림자를 형성하여 노인들에게 은연중 오랜 추억과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로비공간에 담아 보았다. 로비는 마당과는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안팎의 행사와 정서를 공유하며 생기있는 공간을 연출하여 건축이 생리적, 물리적 기능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주는 풍요로운 정서적 기능을 수반하는 공간이고자 노력했다. 두 동 사이에 낀 코어는 두 동으로의 접근도 용이로우며 시각적인 분리도 가능케 해준다. 내외부 재료는 공사비와 안전성의 고려도 있겠지만 가능한 노인네들에게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자 했다. 흙으로 만든 부드러운 질감의 붉은 벽돌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택에서 가장 흔하고 친근감 있는 재료일 뿐 아니라 붉은 색은 건강하고 생기있는 환경을 제공하게되며 두 매스 사이에 낀 좁은 수직의 코어는 목재로 마감되어 컬러나 질

감을 다양하고 리듬감 있게 조화시킬 것이라 생각되며 포근한 느낌의 공간들이 연출되리라 믿는다.

현재 골조 공사가 마감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봄별이 완연하고 꽃이 피는 입주시기에 노인들의 황혼을 더욱 따스하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공간이 탄생되어 주길 소망한다.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8-1
대지면적	2,062.80 m ² (625 py)
건축면적	739.10 m ² (223.58 py)
연면적	2,611.18 m ² (789.88 py)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붉은벽돌+목재후로링